

말바꾸기 예사... 날치기... 법안 처리 뒷전...

相殺의 정치판 "民生 멎는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총리인사 청문회에서 자신의 잦은 말 바꾸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서경훈 민주당 대표는 7월14일 선거사법 편파수사 시비로 파형을 겪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오늘 보니 개판은 진짜 개판이다." 우리 정치의 현실은 우리 정치판에서는 변하지 않을 이 두 사람의 명언(?)으로 환속된다. 지난달 말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인해 빚어진 '개판 국회' 역시 이 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자택을 봉쇄했고, 급기야는 김종호 부의장이 담을 넘어 '탈출'하다 한나라당 측에 '체포'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이런 정치판의 코미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쓸쓸함을 더해주는 것은 '이번 국회는 뭔가 다르겠지' '잘한다고 말했으니 달라지겠지'라는 국민의 기대를 밑받침해 날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6월5일 16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아당과 정책을 통한 경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또 민주당

총무는 "날치기 처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한나라당 총무에게 다짐까지 했었다. 한나라당도 "도을 건 뜯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며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까지 해놓고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무와 도덕성을 상실했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마치 투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입지 유지를 위해 '국회 교섭단체'를 구걸하고 있는 자민련의 '물상식한 행태'가 큰 몫을 하고 있다.

날치기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저지'를 위해 한나라당 원외위원들이 노르웨이 오슬로로 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바탕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자민련은 날치기 법안이 통과될까 걱정했고, 김종호 국회의장의 집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될 날 밤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최고급 위스키 술잔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사법 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 속에 기약없는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혹자들은 우리 정치판을 '쓰레기판'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만 정치인들은 재활용가치도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한동 총리의 말대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평가는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정치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개판'에서 뛰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 이번 국회의 유일한 소득(?)이었다.

부처님은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종교적 가르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단련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길러 그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며,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바른 진리의 즐거움을 얻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런 가르침이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정치인들에게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꾸짖는다. "사람이 그 작은 악을 참회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업이 무거워서 지옥에 태어나는 보를 받게까지 이른다." (열반경)

한명우 기자(mwhan@buddhapa.com)



○7월 25일 오후 김종호 국회의장 집 앞에서 출근저지 투쟁중인 야당의원과 보좌관들이 김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 하긴 다 먹고 있는 것인데...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를 떠올리며 삼복더위를 달랜다. 가고 못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망망대해의 아득한 수평선에 내려앉은 흰 구름과 발 밑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지락. 아니면 깊은 산 주름을 타고 내리는 계곡의 맑고 싸늘한 물줄기의 감촉은 어떤가. 매미가 울어주고 나무 잎새들이 산소를 풀풀 내뿜는 숲 속에서 공중이 불을 붙일 만 한 반반한 바위 하나를 찾아 보자는 것이지, 갈 수 있던 없건 꿈이야 못 꾸겠는가 말이다.

묵혔던 일감 해결도 방법

그래서 여름휴가에 비가 끼기 마련인 장마철에 날씨가 피서객들의 빈틈 없는 각축전이 벌어진다. 며칠 전 스님네 일행이 불어선 대천담 나들이 길에 올랐다. 비가 오는 것도 그친 것도 아닌 녹진한 바람을 안고 가는 데 때마침 일요일이라 나들이 차를 이 더러 눈에 띄었다. 푸른 강산을 구불구불 돌아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구름비가 심심치 않게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에 차를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우산을 받고 빈손에는 육수 한 잔을 쥐고 물을 채우는데 6년이 걸렸다는 땀을 바라보는데 물에 잠긴 산기슭의 곡선이 운치가 있었다. 그 한 정면을 바라보며 역사의 위안길을 잠시 되새기고 돌아오기 위해 왕복 2시간을 달렸던 것이다. 귀로연 양계를 한다는 나한자들의 흔적을 남겨둔 채 보았으며 차장 아니라 최초의 전기 살균 송어양식장이라는 데를 답사했으니 민정시찰을 결정한 휴가의 한 특약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안될 경우를 생각하자. 이열치열이라고 했으니 밀렸던 일을 해치우는 것도 여름 휴가를 선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게다. 휴가일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므로 쉬임없이 되풀이하는 돌니바퀴를 잠시 멈추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보자는 것이다. 주변을 맑게 치우고 묵혔던 일감 보따리를 끄른다. 목덜미를 타고 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일도 몰두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체험 또한 여름 휴가의 값진 선물이 아닐는지. 언젠가 탄 허스님은 일정한 방산에서 무슨 어록(語錄)인가를 인용해 가며

"종아서 하는 일은 피로를 모르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종아서 하는 일이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뜻함인데 뉘엿뉘엿 등업과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대학생들이 사회의 희망이자 여름 휴가의 최량의 부분이라 하겠다.

얼마 전에 TV화면이 새로운 체험에 도전하는 독일 청년들을 보았다. 그들은 땅과 먼지로 뒤덮여 되어 허술한 소극장의 무대 설치에 덤벼들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마당에서 '색다른 분야의 새로운 체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보도매체는 연일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현장을 고발한다. 먹다 버린 찌꺼기에 폐기물, 규격부에서 풀려난 심리적 해이까지 작용해서 환경에 노출된 쓰레기 더미는 한마디로 끔찍하다. 환경대책의 구호들은 공염불로 돌아 가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상투어가 되어버렸다. 맹자는 독신(獨愼)을 말했다. 남이 보지 않건 내 할 바를 알아서 행하는 사람. 들켜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데 성취감을 느낄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의 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켜 나가야 할 통이 자생한 다. 그리고 우리는 생득적으로 그 통을 알아차린다. 질서와 예의와 타인을 위한 배려는 하나 같이 나와 너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성취감 느낄 줄 아는 사람

'가을'이라는 시 한 편으로 우리의 짧은 날을 사로잡았던 밀레는 여름 또한 '만물이 사지를 쭈뼛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는 계절이라고 했다. 30년 가까이 강단에 섰던 대학 여를 캠퍼스의 어느 날 오후 오르막길을 천천히 걸으며 나는 밀레의 '여름 예찬'으로 방학동안의 독서삼매를 부추겼다. 수목의 수액이 모으어서 꼭대기까지 오르 내리는 소리에 귀를 세우며 나무 동치의 나이테의 커브를 눈앞에 그렸다. 이 활짝 열린 계절을 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할까. 휴가까지 바쁘게 살찌우기 바란다. 하여 미구에 다가올 성숙의 계절로 접어드는 데 미진함이 없기를 염원한다.



신동준 (한양대 명예교수)

하루 2시간 5분 TV본다

통계청 '한국인의 생활시간' 조사

"종교생활은 10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평균 8시간 42분 일하고, 7시간 47분 잠자며, 여가활동에 5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7월 26일 발표한 '1999년 국민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하루 24시간의 36%인 8시간 42분을 직장이나 가사(家事), 학교 공부, 출퇴근 등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가활동에는 5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면(7시간 47분)과 식사(1시간 33분), 세수 및 외출준비(58분) 등 필수활동을 하는 데는 10시간 18분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통계는 전국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42,9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2시간 5분)과 신문 읽기(17분) 등 대중매체 이용에 2시간 23분, 교제활동은 53분, 취미생활에 52분, 기타 여가생활에는 52분을 매일 평균적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을 하루 10분

이상 하는 사람은 20명 중 1명(5%)에 불과했다. 또 자원봉사 등 참여 및 봉사활동에는 단 3분만을 사용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종교생활 시간은 하루 평균 10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성별로 보면 하루평균 남자는 5분, 여자는 15분이었다. 평일날 종교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남자가 3분, 여자가 11분으로 평균 7분이었고, 일요일은 남자가 17분, 여자가 34분으로 평균 26분이었다. 종교활동 항목은 개인적 종교 활동, 종교집회 및 모임 참가, 그와 종교 관련 행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지난 해를 기준으로 1백6조5천9백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것은 가사노동시간에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곱한 것이다. 또 성인 남자 5명 중 1명은 평일에 청소와 집안정리를 하루 10분 이상 하고 있었다. 학생의 총 학습 시간은 평일에 초등학교가 7시간 21분, 중학교가 8시간 53분, 고등학교가 10시간 7분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3명중 1명 "한달 한변이상 음주"

청소년 음주문화 실태

최근 한 대학의 교수가 발표한 청소년 음주문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전에 처음 술을 마신 청소년이 29.3%에 달했고, 중학교에서 첫 음주경험을 한 청소년은 27.3%를 기록했다. 우리 청소년의 절반이 넘는 56.6%가 중학교 졸업 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음주 경험률에서도 청소년의 3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에도버니경〉은 "술은 독약이고 독수(毒水)이며 부귀(毒氣)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술은 〈대에도버니경〉의 말처럼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가 될 뿐이다.

가짜 휘발유 넘친다

도심 주유소까지 무차별 유통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가짜 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말엔 기름을 넣지 마라'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도심 외곽에서의 주유는 가급적 피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로, 범부류 주유소의 상당수가 '뜨내기 손님'을 상대로 가짜 휘발유를 팔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업계 사람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시가나 장소에 상관없이 가짜 휘발유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성남, 고양, 광명, 군포, 시흥, 안산, 인천 등 경인지역 일대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유가자유화 이후 가격경쟁이 심화된 데다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마저 인상되자 영세 주유소들이 앓다뉘 가짜 휘발유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처벌이 미약하고 관계기관의 단속이 느슨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사기 상술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홍요경〉은 이런 부정직한 상행위에 대해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고 설하고 있다.

처벌규정과 전국 모든 주유소의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부정행 방법으로 이익을 남길 수는 없다는 교훈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신비의 마이산 탐사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

28분 안에 선승과 같은 명상상태 돌입!

- "초월적 경험의 보편화" 신과학 뉴로테크놀로지 명상법 -

트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에게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공체 또는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지냈는데 우연히 모 윌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행해본 결과 지금은 5분내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분에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친김에 오리진동쿠션과 백색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본 결과 11분 지구에너지 명상, 17분 내적 즐거움, 19분 에너지제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기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마저 말끔히 씻어 주었다. 메가플러스 안내책자는 명상이 무엇인지 체계있는 이론과 기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명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문 수행인, 직장인, 주부, 학생이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메가플러스 명상프로그램은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이들에게 공명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본 소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는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수행이면서 당위인 것이다. 메가플러스의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조화를 창조하고 보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담당명상체험교실 중의 합장 > (031) 742-9859 >

메가플러스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에너지 명상, 치료, 유제일, 창의력, 시강화 등 27개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험 가능 (기본사양: 녹색색안경/울트라 청색, 보라색, 순백색광안경)

(미국 마이크로프로세서 제품 Made in USA)

오라진동쿠션

오라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적용되며 이를 채감진동으로 변형시켜, 특히 목재수준의 명상, 기공과 치료, 유제일, 무시간상태를 보다 강력하게 중장시킴

(미국 오리진시스템 제품 중국 OEM)

사용 효과

재중전호: 짧은 시간 내에 신체이완과 깊은 휴식으로 생체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피로회복, 스트레스, 정신안정, 불면증, 집중력 증진, 99% 효과 보장한다.

명상효과: 안과/세탁과 중간지점(어둠의 지대)에서 빛의 관벽(음시테 코너/엔드포인트)과 소리관벽으로 크게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메가플러스의 바이브로 및 리듬, 케이지 기능은 전 차크라의 개방(에너지를 수축), 무시간/관공상태 경험을 보다 쉽게 유도해준다.

마인드테크 제품/구입문의 (02) 888-2142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의 깨달음」 소책자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